

출판의 '걸어온 길' 보여주는 도서목록들

출판사 도서목록 다양화... 정확한 서지사항, 데이터베이스화 시급

출판사의 도서목록들이 눈에 띄게 다양화·전문화되는 추세다. 발행형태나 양식, 횡수 등은 서로 다르지만 편집디자인과 서지사항 등에서 시각화·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출판계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도서목록은 각 출판사의 지나온 발자취와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적표이자 얼굴이다. 한편 한편의 책자에 담겨 있는 출판철학과 앞으로 나아갈 출판방향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도서관에도 없는 책의 목록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내부역량과 개성 집결

현재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매년 단행본 형식의 자사도서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신간 중심의 목록(분야별, 주제별, 계열별 등)이나 도서정보지 《나의 정신세계》(정신세계), 《리브로》(한길사), 《문학동네》(문학동네), 《범우》(범우사), 《열린책들 북게스트》(열린책들), 《창비문화》(창작과비평사), 《책과 선택》(열화당), 《책모임》(삶과꿈), 《책세상소식》(책세상), 《책의 세계》(홍익출판사) 등을 통해 신간안내를 병행하는 곳도 있다.

판형과 부수, 제작단가, 제작기간, 활용방안 등은 각 출판사의 내부역량과 출판분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쌓아온 대형 출판사들의 경우, 거의 매년 도서전시회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종합도서목록을 제작한다. 적게는 5천부에서 많게는 1만부 정도 발행하고 있다. 목록제작을 위해 거의 대부분의 편집부·디자인부 직원이 참여한다. 제작기간도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첫판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고 신간도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판형과 표지, 본문구성은 각 출판사의 개성을 보여준다. 판형은 A5판(국판)이 대부분이지만, A6(문고판)부터 B5판(4×6배판)까지 다양하다. 나날출판, 문예출판사, 범우사, 지식산업사 등은 정보위주의 단색 인쇄물들이지만, 문학동네, 민음사, 세계사, 열화당, 한길사 등은 정보성뿐만 아니라 컬러인



출판사 도서목록은 각 출판사의 출판철학, 앞으로의 출판방향까지 기능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우리의 지적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철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다.

국내 출판사의 도서목록들.

쇄에 다양한 편집요소로 장식성을 보였다.

도서목록의 핵심은 서지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종합목록에서는 자사의 출판물을 장르별로 분류한 후, 개별 도서별로 서지 데이터(서명, 저자, 판차, 발행일자, 면수나 책수, 삽도, 판형, ISBN 또는 ISSN, 해제, 가격 등)를 기술한다. 권말에는 서명·저자명 색인, 또는 절판·품절 목록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해냄출판사의 도서목록은 서명, 저자, 해제 등을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나란히 수록했다.

외국저작물의 번역책자는 원제가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사, 서광사, 한울 등 소수의 목록만이 원서명을 밝히고 있다. 특히 ISBN과 판차(초판,쇄, 개정판, 수정판, 절판사항 등의 구분)는 유통과 서지연구상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정확하게 반영된 도서목록이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중견출판사들과는 달리 영세하거나 출판연륜이 짧은 출판사들은 제대로 된 도서목록조차 없는 실정이다. 도서목록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목록화할 만큼 출간종수가 많지 않거나 도서회원제가 정착되지 않아 목록의 고정독자가 없으며, 제작 및 발송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외국의 우수출판사들은 국내용뿐만 아니라 해외 저작권계약을 위한 전략으로 도서목록을 발간하고 있다. 임프리카 코리아 에이전시의 이규용 과장에 따르면, 외국 유



외국 출판사의 도서목록들.

명 출판사들은 계열별로 신간중심의 도서목록을 발행한다. 특히 프랑크푸르트, 시카고 전시회 등 국제도서전을 겨냥해 미출간본 중심의 목록을 발간한다. 여기에 출간예정 도서의 내용과 표지 등을 목록화한다. 외국 출판사와의 저작권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도서목록은 따로 제작되지만, 신간목록 뒷면에 부록식으로 총목록을 제시하고 서지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미국 밴텀사의 98년도 도서목록을 보면, 98년 1월~12까지 출간 예정 책자의 표지, 마케팅 정보, 저작권 사항(판권, 연재권, 비디오 판권 등), 해외 판권 관리자, ISBN,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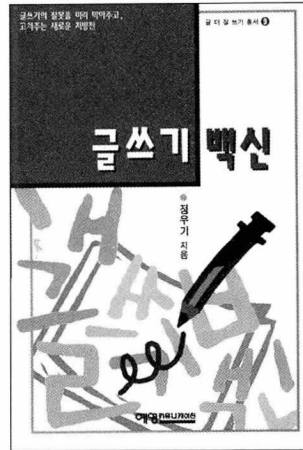
르 구분이 명기되어 있다.

독자·서점·도서관 등에서 활용 미흡

도서목록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아직은 정보가치와 서지학적 가치로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목록의 배포는 출판사마다 다른데, 도서관이나 기업, 연구실 등 그 출판사의 고정고객 및 리스트화된 일반독자, 서점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점에서는 업무용 자료로서 도서목록이 중요하다. 매장에 없는 책을 주문하는 경우, 비슷한 책이 많은 현실에서 출판사명·서명·저자명을 도서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글쓰기 백신



기존의 글쓰기 지침서들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고답적인데 비해 이 책은 부드럽고 실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좋은 덕목을 갖추고 있다. 한 번 백신을 맞으면 그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글쓰기에 대해 지적 받고 교정 받으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정우기/A5신/252쪽/6,500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점 실무자들이 도서목록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교보문고 채승규씨(고객서비스 기획팀 대리)는 “시간이 들어오면 서점에서 매달 입하목록을 작성하고, 매년 전체 판매도서목록을 발간하는 등 자체적으로 목록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출판사 도서목록을 크게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소형서점을 운영하는 서정만씨(동신서점 대표)도 주거래 출판사들의 도서목록을 비치하고 있지만, 도서목록을 찾아보고 도서를 주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손님들이 자주 찾거나 지명도 높은 저자의 도서를 중심으로 총판을 통해 도서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수서(收書)업무를 위해 출판사 도서목록을 참고한다. 그러나 최신간의 수서를 위한 자료로서 현재 나오고 있는 도서목록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이승은씨(정독도서관 사서과)는 “대부분의 도서목록을 비치하고 있지만, 최신간의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출간분과 미간본의 구분이 빠졌거나 판차의 기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서점을 찾아가 직접 도서를 보고 수서한다”고 말한다.

독자들도 도서목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아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제4회 국민독서실태 조사》(1996년도)에 따르면, 성인독자가 책을 선택할 때 정보원으로 출판사의 사보나 도서목록을 활용하는 경우는 96년 2.9%로 신문·잡지·TV 기사와 신간안내(29.2%), 주위사람 추천(15.4%)에 비해 낮다.

외국 출판사의 도서목록의 경우, 해외저작권 에이전트나 일반독자, 도서관 사서 등이 중요한 정보자료로 이용한다. 이승은씨는 도서관에서 외서구입은 적은 편이지만, 도서목록을 보고 바로 수서가 가능할 정도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서지사항, 데이터베이스화 요청

출판사 도서목록은 그 다양화·전문화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서목록이 체계적으로 발행되지 못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독자, 도서관(대

학·공공), 서점 등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도서목록의 개발도 소홀한 형편이다. 몇몇 도서목록의 경우, 서지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목록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발행주기가 늦기 때문에 최신간 도서의 신속한 정보가 필요한 연구자나 도서관 사서들에게 최신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도서목록 편집담당자의 치밀한 기획과 발행주기의 다원화 전략이 요구된다. 정재정씨의 논문(〈대학도서관의 자료선정 도구로서 출판사 목록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연구—국내자료선정을 중심으로〉, 1994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따르면, 경제적인 여건상 개개 출판사에 의한 시도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출판학회나 한국출판연구소 등의 공공단체에서 출간(판매)도서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서지사항에 쇄와 판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권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의 서평이 첨가되어야 한다.

출판연구소 백원근 연구원은 “독서환경, 출판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출판사나 대형서점, 국립도서관, BNK 등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도서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수준이다. 일반 서지사항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으로 내용 요약 등 실제적인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고 말한다. 출판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국내 출판사들의 세계화 마인드도 필요하다. 우리의 지적 재산을 세계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규격에 적합한 도서목록으로 국내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아야 할 것이다. — 박천홍 기자



캡, 괴도 나는 한국어자

변경숙/A5신/256쪽/6,500원
뉴질랜드 이민 1세대로 20살 연상의 영국계 뉴질랜드인과 결혼하여 이주한 후 3남 1녀를 키우면서 민간외교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변경숙. 낯선 땅, 낯선문화 속에서의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삶의 체험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웃음건강학

김용운/A5신/224쪽/6,500원
웃음이 건강을 가져다 준다. 오랫동안 웃음에 대하여 자료를 모은 저자는 웃음요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 책은 독자들에게 웃음 넘치는 생활로 하루를 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

가와카타 요시노리/장경통/B6(양장)/328쪽/7,500원
누구나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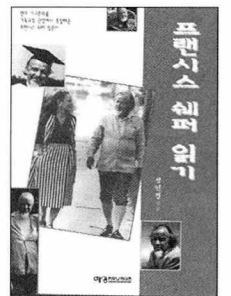
실전 이벤트 기획론

전성환/B5/202쪽/10,000원
인기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벤트 프로듀서들이 실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기획 절차와 서면양식 등이 담겨 있는 이벤트 실무 지침서이다.



음향시스템 핸드북

장호준/B5/208쪽/8,000원
음향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저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실제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교회, 학교, 기업체, 음향회사, 유선방송국 등의 음향시스템 운용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프랜시스 웨퍼 읽기

성인경/A5신/288쪽/7,500원
20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프랜시스 웨퍼 박사의 저작물에 담긴 사상을 열두 편의 글로 정리한 프랜시스 웨퍼 입문서이다. 그 사상을 신앙뿐만 아니라 예술, 정치, 역사 등 전 문화 영역에 적용하였다.